

<解説>

오만의 수산실정과 트롤선 입어 문제점

변 덕 수

한국해양수산 연구원
(2001년 8월 1일접수)

The Status of Omani Fisheries & Fishing Problems of the Korean Trawler in Omani Waters

Duck Soo Byu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Received August 1, 2001)

서 론

필자는 2000년 12월 31일 부터 2001년 2월 28일 까지의 일정으로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사업(무상원조사업)인 수산분야 전문가로 파견하여 OMAN에 2개월간 체재하면서 어업기술지도와 정책자문에 응하였다. 초청기관은 오만의 농수산부로서 해양수산과학센터(Marine Science Fisheries Center)의 안내를 받아 Mutra 주위와 남쪽 Salalah 주위 등 오만의 주요 어항과 수산시장 및 관련기관을 순회 방문하면서 수산과 어업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오만의 수산실태 및 문제점들을 수차 논의하였으며 본 발표문은 본인의 직접적인 탐방에 의한 것과 수집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일반현황

오만(Sultanate of Oman)은 국토면적 31만 평방km로 이 중 사막이 82%, 산맥 15%, 해안 지역 3%로서 인구는 1999년 현재 외국인(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인등 약 50만 명)을 포함

하여 232만 명으로 이중 약 60만 명이 수도 무스카트(Muscat)에 살고 있다.

수출(1999년도 수출 : 72억\$ 수입 : 47억\$)의 거의 대부분인 석유는 매장량 약 53억 배럴에 1일 생산량 약 90만 배럴로 향후 20년 후이면 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한 대체산업 개발에 고심하고 있으며, 그 대체산업의 하나로 수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오만은 아라비아해(Arabian Sea) 해안국가로서 전체 해안선길이 약 3,000km(직선해안선 길이 1,700 km)와 풍부한 수산자원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수산개발에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오만은 1인당 GNP가 7,000 \$정도이나, 실제 생활여건이나 교육정도(문맹률 59%)와 기술력 등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국가이고, 풍부한 수산자원은 있으나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여건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산기술의 전문성에서 보면 아직도 선진 수산국의 도움이 절실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산유국이어서 석유수출 덕분에 GNP가 높다고는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저생활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므로, 수산분야에 관한 도움이 절대 필요한 국가로 사료된다.

1980년대 초부터 우리 원양어선들이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오만을 관련지어볼 때 우리 나라의 원양어업은 호황을 누렸던 70-80년대 이후 어장부재로 인한 수산회사의 어려움과 선복량 감축 중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해 오만은 풍부한 수산자원은 있으나, 절대 필요한 선박과 기술, Man Power가 없는 현실에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므로 먼저 오만수산실정을 이해하고 현재 입어를 하였다가 입어 포기를 하고 타 어장으로 옮겨가게 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99년까지 11척이 입어 조업하였으나, 2000년 현재 오만 회사소속선 2척만 조업하고있는 실정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산현황

1.오만의 수산실정

오만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의 역사가 긴 국가이지만 현재 운용되고있는 대부분의 선박은 3톤 미만의 소형선으로 선 외기 FRP선박과 전장 15~23 m의 목선인 Dhow 등이며 Dhow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선은 부두 계류장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백사장에 선박을 올려놓았다가 조업하러 나갈 때 다시 내려 출항하고 있으며 어법은 거의 대부분이 연안 자망이고 지역과 계절에 따른 연승 및 통발(Traps)을 겸용하고 있으며 연안 Seine 즉 지인망으로 Sardine(정어리) 어획을 하고있고, 남쪽에서는 미국에서 제작 생산된 통발을 이용하여 가제를 어획,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조업형태는 소형선인 관계로 저녁에 나가 그물을 설치하고 다음날 새벽 어획물을 잡아오는 형태이다. 냉동공장은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판매시장 건물은 몇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전중으로 끝내는 노천판매를 하고 있다.

OFC는 Oman에서 가장큰 수산회사로 한국 입어선의 대방사로서 냉동공장과 유통업을 겸하고 있지만, 수입원의 대부분이 한국 입어선 관련사업으로 현재 한국 입어선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회사운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 폐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관리하던 입어선 8척 중 1척은 Docking 수리중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나

1)수출량 및 금액 (1999)

Total fish export	Total value (RO :1,000)
45,632 M/T	35,457 (약 92,000,000\$)

2) 선박적수 및 선원 수 (1999년)

Region	Sha sha h	Al-Mini um	Lau nch	hori	Fiber	Total	Fishe rmen
Musanda m	0	29	100	217	1,145	1,490	3,171
Al-Batinah	986	86	28	183	3,185	4,468	9,401
Muscat	1	15	7	59	1,598	1,681	3,596
Al-Sharg iyh	0	79	248	283	1,568	2,178	5,878
Al-Wust a	0	23	30	58	1,190	1,301	2,761
Dohfar	0	115	23	10	1,318	1,467	2,709
Total	987	347	436	810	10,005	12,585	27,516

3)어획량 (1997~1999)

Years	M/T		
	Industrial	Traditional	Grand Total
1997	34,549	844,444	118,994
1998	17,608	88,557	106,165
1999	12,145	96,664	108,809

머지 7척은 현재, 타 어장(인도어장, 예멘 어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이다.

OSC는 과거 풍산수산의 선박 2척을 인수하였지만 운영능력이 없는 관계로 한국의 대현수산에 용선해 주고 용선료만 받는 회사로서 실제 운영은 한국의 대현수산이 하고 있으며, 현재 오만 수역에 조업하고 있는 선박은 OSC 소속의 Sea Queen 1호와 2호 2척 뿐이다.

Gulf of Oman은 오너가 그리스 선주인 회사로 1척 뿐이며 한국 주재원이 관리운영하며 선장 및 간부사원은 모두 한국 선원들이다.

변덕수

4) 어종별 어획량 (1997~1999)

Small Pelagics				M/T
Species	1997	1998	1999	
Sardine	10,580	15,872	15,025	
Indian				
Oil Sardine	6,185	4,778	6,685	
Indian Mackerel	2,207	1,994	2,024	
Anchovy	1,189	941	485	
Small Jacks	3,896	2,957	2,552	
Mulletts	139	176	158	
Neddlefish	252	116	209	
Other	1,001	3,849	4,227	
Subtotal	25,451	30,684	31,365	

Large Pelagics

species	1977	1998	1999	M/T
Yellowfin tuna	15,905	14,897	7,377	
Longtail Tuna	5,020	4,373	4,798	
Kawakawa	2,388	1,731	1,522	
Striped Bonitto	498	162	134	
Frigate tuna	846	611	583	
skipjack	730	227	320	
Other Tuna	366	124	99	
Kingfish	5,944	3,145	3,390	
Queenfish	703	528	693	
Baracuda	2,023	1,789	2,347	
Cobia	180	115	124	
Sailfish	1,261	591	399	
Large Jacks	3,216	2,323	2,556	
Other	1,948	2,206	6,563	
Subtotal	41,027	32,828	30,905	

Crustaceas

Species	1997	1998	1999	M/T
Lobster	263	336	180	
Shrimp	376	65	356	
Cuttlefish	6,148	4,080	7,478	
Abalone	40	40	29	
Undentified fish	355	432	1	
Subtotal	7,181	4,954	8,043	

Sharks & Rays				M/T
Species	1997	1998	1999	
Sharks	6,342	4,805	4,020	
Rays	359	189	289	
Subtotal	6,701	4,995	4,308	

Demersal				M/T
Species	1997	1998	1999	
Emperor	5,756	6,630	6,954	
Seabream	4,322	4,016	6,098	
Grouper	3,366	5,345	4,829	
Crocker	5,468	2,218	2,121	
Sweetlips	1,111	713	627	
Snapper	657	474	597	
Jobfish	2,068	466	1166	
Rabbitfish	259	122	97	
Catfish	679	1,024	1,161	
Ribbonfish	10,384	4,767	1,776	
Other	4,554	6,938	8,760	
Subtotal	38,634	32,713	34,186	

5) 회사별 트롤선 생산량

(1997~1999)				M/T
Company	1997	1998	1999	
OFC (Oman Fishing Co.)	21,537	9,509	9,253 (8척)	
OSC (Oman Sea Co.)	4,029	1,989	2,088 (2척)	
Sadah Marine Prod	119	672	0	
Gulf of Oman Co.	1,480	1,084	803 (1척)	
Total	27,165	13,254	1,214 (11척)	

트롤 입어선의 실정과 문제점

80년대 초부터 우리 나라 원양트롤선들이 오만 수역에 입어를 해오곤 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총 11척이 조업을 하였으나 2001년 2월 현재에는 2척만 남아 조업을 하고, 다른 선박들은 타 어장으로 옮겨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업을 하고있는 2척은 오만 선주 선박이며 나머지 우리 나라 선박들이 오만 어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1. Discarding Fish (Let's go fish) 금지

상품화하지 못하는 치어나 비 상품 어종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는 목적은 환경(바다오염)과 자원보호로 생각되어진다. 한정된 어창용적에 상품이 되지 못하는 어획물을 적재하여 신고 온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채산성에 문제가 많음은 물론 만약 투기하다가 감독관(Inspector)에게 적발, 고발되면 재판정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지 심한 경우 선박 몰수라는 형까지 받고있는 실정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선박이 입어하여 조업하는 곳에서는 이런 곳은 없으며 국가별로는 어획해서는 안 되는 어종(금지어종)이 있는 곳은 있다.

2. 엄격한 조업규제

조업 가능한 수역으로는 첫째 21° 00' N이남 수역, 둘째 연안으로부터 10마일 바깥 수역, 셋째 수심 50 m보다 깊은 곳이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조업할 경우 실제 채산성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관련자들의 견해였으며, 입어 선사들의 요구는 연안 10마일 바깥 수역과 수심 50 m 이심 수역중 1가지만 적용시켜주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 제도하에서 수심을 50 m에서 30 m로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Inspector)과 본선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피해는 항상 본선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3. 선원 상륙금지

상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 받은 선원은 상륙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상륙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이다. 장기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과 많은 경비(1인당 5,000 \$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

중동국가(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 오만 감독관(Inspector) 경우는 1 항차(약 35일)도 못 견디고 2명이 교대승선하고 있는 실

정이다.

4. 감독관(Inspector) 횡포

실제 선박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있는 것은 이 감독관(Inspector)들 때문이다. 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며 특히, 감독관이 보고하는 Report에 의해 선박들의 제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독관의 횡포는 심한 상태이고 선교 근무자(항해사)들의 중도귀국 대부분은 이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5. ATP장비 설치 의무와 휴어기

ATP(Automatic Transfer ship Position)장비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어선들의 의무이며, 설치시 많은 경비는 각오해야하고, 감독관도 승선시킨다면 이것은 이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월과 8월의 몬순철 인 이 시기를 휴어기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시기가 입어선들의 수익을 기대하는 연중 몽고 이가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향

이슬람교의 전형적인 중동국가이고 “인살라”로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있는 국가이지만, 오만을 좀더 이해하는데 노력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원양어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수산개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오만의 현 실정(선박, 어로기술, Manpower 부재)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y-Catches(버리는 고기) 문제를 심각히 야기시키는 어법은 지양하고 감척 예상인 우리 나라의 자망이나 통발선들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지켜야할 규범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